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19세기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9)

-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2021년) 내용 소개와 보완 -

필자는 2021년에 집필한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공저, 서울역사편찬원, 2021년 3월)을 새롭게 수정·보완해서 『상교우서』 독자와 교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호부터 위의 글 중 3~4절 부분과 새로 보완할 내용을 정리해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위의 글 ‘4장 1880년대 근대 활판인쇄소의 서울 건립’의 내용 중 첫 번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두 번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블랑 주교 (제7대 조선대목구장)



「최 바실리오 이력서」

4. 1880년대 근대 활판인쇄소의 서울 건립

* 2021년 글(256~262쪽)에서 각주와 일부 인용문을 제외했고, 한자와 추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밑줄로 표시)

3) 블랑 주교의 목판인쇄소 건립과 천주교서적 간행 (1880~1886년)

1884년 리텔 주교의 사망 이후 제7대 조선대목구장이 된 블랑 주교는 1879년부터 조선 안에 목판 인쇄소를 건립하여 부족한 서적들을 간행하려고 했다. 당시 블랑 신부는 두 가지 방안을 통해 교회서적을 간행하려고 했다.

하나는 블랑 신부를 찾아와 자신이 철활자로 책을 인쇄하겠다고 제안한 박무주라는 비신자 양반에게 인쇄를 의뢰하는 방안이었다. 또 하나는 직접 믿을 만한 신자에게 위탁하여 인쇄소를 운영하는 방안이었다. 실제로 블랑 신부는 신자를 통해 인쇄소를 운영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 실행에 옮겼다.

3장에서[4월호 3~4쪽] 언급했듯이 1860년대 판각에 참여한 경험이 있던 최우정은 당시 블랑 신부의 지시에 따라 목판인쇄소를 마련하고 천주교서적을 간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자료로는 당시 블랑 신부가 조선대목구장 리텔 주교에게 보낸 서한들과 최우정의 아들 최상종(빈첸시오)이 기록한 「최 바실리오 이력서」(이하 ‘이력서’로 줄임)가 확인된다.

블랑 주교는 1879년 봄부터 최우정에게 인쇄 작업을 지시했는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인쇄할 서적을 선별했다.블랑 주교의 1879년 12월 12일 서한 반면 ‘이력서’에는 경진년(1880년) 경에 블랑 주교가 1860년대 판각에 참여한 적이 있는 최우정을 불러 인쇄 작업을 지시하면서 노임(勞賃)을 의논해서 정했다고 나온다. 연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두 자료가 일치하고 있으며 ‘이력서’에는 노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블랑 주교의 1880년 9월 1일과 1882년 2월 22일 서한에 의하면 1880년에 인쇄공들에 의해 인쇄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1881년과 1882년 2월 사이에 목판본 서적이 간행될 수 있었다. ‘이력서’에는 최우정이 인쇄소를 마련하여 인쇄 작업에 착수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블랑) 주교가 허락하사 성사(成事)할 새, 우선 소용있는 집을 구하는 중, 근동(近洞)의 특실 양달 마을에 하나 파는 집이 다락과 벽장이 있어서, 으스스하고, 집이 쓸 만하였다. 이 집을 사서 들고, 건너 음달마을에 연포지목(連抱之木, 아름드리나무) 배나무 세 그루를 사서 소용하는데, 외인(外人, 비신자)들이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면, “서울의 누가 목기(木器)를 부탁하여 한다”[고 말했다.]

* 최상종, 「최 바실리오 이력서」, 『순교자와 증거자들』,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237쪽.

당시 서울이 아닌 충주 사장골[현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에 거주하던 최우정은 가까운 ‘특실 양달’[현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사곡2리 특실(토곡동) 양달말]에 집을 새로 구입하고 근처 마을에서 재목(배나무)을 구해 판각했는데, 비신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 목기(木器)를 만든다고 둘러댔다.

블랑 주교의 서한과 ‘이력서’에는 최우정이 운영했던 목판인쇄소에서 간행된 서적의 제목이 확인된다. 또한, 블랑 주교의 서한에는 간행 부수와 간행 시기, 책값이 언급되어 있다. 1882년 2월 22일 서한

에 의하면, 1882년 2월 이전 일본의 나가사키 인쇄소에서 『천주성교공과』를 간행해서 보냈는데 이미 조선의 인쇄소[최우정 운영]에서 『천주성교공과』 제2권을 500부 인쇄해서 1냥 30전이라는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었다. 동시에 『천주성교공과』 제3권의 인쇄 작업이 3월 중에 마칠 것이며 이 책도 500부가 인쇄될 예정이었다.

『신명초행』과 『천주성교예규』도 인쇄 작업 중에 있었다. 그해 5월 이전에는 『성교요리문답』 100부가 간행되어 블랑 주교에게 보내졌으며, 『천주성교공과』 제3권이 인쇄 중에 있었다.[1882년 5월 24일 서한] 같은 해 10월 이전에는 예정대로 『신명초행』과 『천주성교예규』가 간행되었다. 1884년 5월 이전에는 『천주성교공과』 제4권이 간행되었다.[1884년 5월 31일 서한]

‘이력서’에서도 구체적 간행 시기와 부수는 알 수 없지만, 인쇄소가 폐쇄되는 1886년까지 간행된 서적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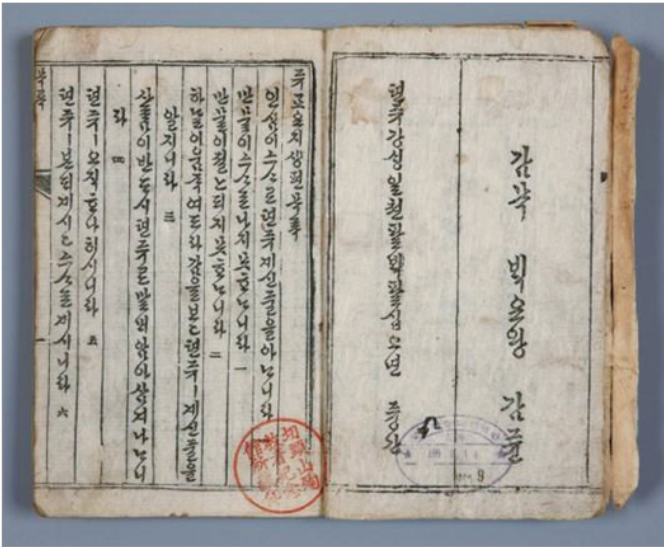
[인쇄소 설립 이후] 무사히 5년을 계속하여, [성교요리]문답, [천주성교]공과 1·2·3권, [천주성교]예규를 판각하고, 공과 4권은 이웃의 최 회장 공필씨가 한 것이다. … 병술(1886)년을 맞아 서 책자는 정지되었다.

* 최상중, 「최 바실리오 이력서」, 『순교자와 증거자들』,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237쪽.

블랑 주교의 서한들과 비교해 보면, ‘이력서’에서도 『신명초행』을 제외한 『성교요리문답』, 『천주성교공과』, 『천주성교예규』의 간행이 확인된다. 이 서적들은 베르뇌 주교가 건립한 목판인쇄소에서 초창기(1861~1862년)부터 간행했던 서적들이다. 당시 재건되는 천주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서적들이 1880년대에 국내에서도 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4책이 한 질인 『천주성교공과』 중 1~3권은 최우정이, 마지막 4권은 이웃의 최공필 회장이 각각 판각해서 인쇄했음을 ‘이력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력서’에는 인쇄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1885년에 간행된 『주교요지』의 목판본이 현재 절두산순교성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과 송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목판본의 속표지에는 ‘감목 빅요왕 감준, 턴주강싱 일천팔빅팔십오년 중간’이 명시되어 있다. 최우정의 인쇄소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블랑 주교의 1886년 9월 1일 서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블랑 주교가 1886년 9월 1일 교황청 포교성 장관에게 보낸 서한(A-MEP, Vol.580, f.1454)에 의하면, 나가사키에서 서울 정동으로 이전한 인쇄소는 그해 8월부터 인쇄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조선 인쇄소’에서 “천주교를 반대하는 모든 외교인[비신재]들의 이론에 대한 답변과 조선의 미신 행위에 대한 변론의 양식을 갖춘, 예비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책”을 간행했다. 블랑 주교의 서한 내용을 보면, 주교가 설명한 책이 『주교요지』이며, ‘조선 인쇄소’는 최우정이 운영한 목판인쇄소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주교요지』(1885년) 인쇄본과 목판 [절두산순교성지 소장]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1879년 봄부터 블랑 주교의 지시에 따라 최우정이 충주 특실 양달 지역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신자들을 고용하여 1881년과 1882년 2월 사이에 첫 서적을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최우정이 운영하는 목판인쇄소는 1886년 폐지되기까지 『성교요리문답』, 『천주성교공과』, 『천주성교예규』, 『신명초행』, 『주교요지』를 간행했다.

이와 같이 1880년 중반까지 조선 국내와 일본 나가사키에서 목판본과 활판본으로 각종 천주교서적이 동시에 간행되었고, 조선대목구의 신자들에게 판매·배포되었다. 그런데 ‘이력서’에 언급됐듯이 1886년에 목판 인쇄가 중지된 것은 일본의 활판인쇄소 시설을 국내로 들여온 시점과 맞물려 있다. 새로운 근대적 인쇄소가 서울에 건립됨으로써 대목구 소유 인쇄소들이 통폐합되었고, 더 이상 목판인쇄소의 효용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3호 원고 모집 (마감 연장)

- 투고 마감일(연장) : 2023년 8월 12일 / 분량 200자 원고자 200매 안팎
- 보내실 곳 : 연구소 홈페이지(casky.or.kr)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사학』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 『병인순교자 시복재판록』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